

'임실N치즈' 오차없이 준비

심민군수, 준비상황 점검 축제는 10월 6일~9일까지

임실군은 오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열리는 2018 임실N치즈축제를 앞두고, 심 민 군수를 필두로 종합적인 점검에 나섰다.

군은 20일 심 민 군수 주재로 간부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월중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임실N치즈축제 준비상황을 집중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 민 군수, 확대간부회의 갖고 임실N치즈축제 준비상황 종합점검하고 방문객 편의 시설 주차 교통문제 등 중점보완 대책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프로그램 세부일정 및 축제장 공간배치, 편의시설, 환경 조성, 축제운영 및 행정지원 사항 등 각 부서별 축제 전담사항 준비상황 등을 세밀히 보고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최근 부각되고 있는 관광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체험콘텐츠를 발굴했으며, 임실N치즈페어(치즈시장), 치즈마을 한방영화제 등 새로운 프로그램도 편성해 방문객들에게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해 국가대표 왕치즈피자 만들기, 우유드림 행복드림 퍼레이드 등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던 프로그램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하고 있다.

전국어린이 치즈요리경연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경연대회와 국가대표왕 피자 만들기, 아모르파티, 천만송이 국화전시, 나만의 치즈체험 등 프로그램 홍보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전주한옥마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축제 사전홍보를 위해 전주시와 협의해 플래시몹 행사 준비에도 불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심민 군수는 이날 보고회에서 "전담 세부사항을 꼼꼼히 실행하여 소관 실과장이 주관부서라는 책임감을 갖고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며 "지난해에 부각된 문제점

을 해소하고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는 데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주차장과 우회도로 등 기반시설의 속도감 있게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5년에 처음 개최하여 올해 4번째로 맞는 임실N치즈축제는 지난해 방문객 45만명의 대성공과 함께 대한민국 문화관광 유망축제와 전라북도 최우수 축제에 선정됐다.

올해는 여느 해 보다도 한발 빠르게 축제 일정을 슬로건, 그리고 대행사를 선정하는 등 더욱 더 발전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수립되고 있어 대한민국 대표축제의 명성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올해 균형발전 2개 사업 우수사례 선정

한국형 유용균주산업 우수

자연계 발효식품 육성도

순창군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추진한 '2018년도 균형발전 사업 평가'에서 2개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기쁨을 토했다.

군은 '한국형유용균주산업기반구축사업'과 '한국형유용균주산업기반구축사업'이 지역경제활성 우수사례

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선정으로 순창군은 해당 사업별로 기관표창 및 재정인센티브도 별도로 받게 된다.

우선 '한국형유용균주산업기반구축사업'은 창의산업거점기반지원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전통발효식품에 존재하는 우수한 유용미생물을 자원화해 발효식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축산사료, 반려동물 사료 등 기존 제품을 한단계 뛰어넘는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지역

기업에 기술이전 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 중이며 총 15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다.

'지역연계 발효식품(장류·과재) 육성사업'은 순창의 고추장 장수의 성과와 토마토라는 향토자원에 순창군 발효기술을 접목해 토마토발효고추장, 동부권 메주, 한국형 발효커피 등 융복합 제품을 개발하고 사업화, 유통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농기센터, 안전 농산물 생산위한 토양검정 실시

친환경 농업기반 마련

안전한 농산물 생산 위해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에서는 친환경농업기반을 마련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경지 토양검정과 시비처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토양검정은 흙의 산도, 전기전도도, 유기물, 칼륨, 칼슘, 마그네슘, 유효인산, 규산 등 토양의 이화학 성분을 분석해 작물생육단계에 적합한 시비를 처방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다.

토양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대상 필지내 작토층 5곳 정도를 선정 포트를 1~2cm 정도 견어내고 작물 뿌리

가 분포하는 약 15cm 깊이(과수 30~40cm)에서 흙(500g 정도)을 채취·혼합해 깨끗한 봉투에 담아 이름, 연락처, 주소, 작물명, 경작지 등을 기재해 가까운 농민상담소나 농업기술센터 종합기능실을 방문해 검사를 의뢰하면 되며,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계(063-620-8032)를 통해 하면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인헬기 항공방제는 관행적인 일반방제에 비해 살포작업에 드는 비용, 시간, 노력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내고 있다

벼 항공방제 효과노릇 특특

임실군, 이달 중순까지 항공방제 지속 실시 호응

임실군이 추진한 벼 항공방제가 임실이 부족한 농가에 효과노릇을 특특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벼 병해충 항공방제를 전 읍면에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20일 군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임실을 외 7개 면을 대상으로 1,941ha의 면적에 1차 항공방제를 실시한 데 이어 19일부터 23일까지 임실읍, 오수면, 삼계면, 지사면, 신덕면 등 5개 읍면 1,771ha의 면적을 대상으로 2차 항공방제를 실시 중이다.

벼 항공방제는 벼 재배 농업인의 부족한 일손을 덜고 우수한 품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 임실군이 적극 추진 중인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5년 첫 항공방제를 실시한 이후, 이삭도열병과 멸구류 등 벼 재배 후기 병해충 방제에 큰 효과를 내면서 농가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오수면의 김모씨는 "그동안 줄을 잡고 약제를 살포하는 일은 중독 위험에 노출되어 위험한일이었다"며 "집중방제를 통해 병해충 밀도는 낮추고 방제효과는 높이는 항공방제는 이제 농사에서 꼭 필요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심 민 군수는 "무인헬기 항공방제는 관행적인 일반방제에 비해 살포작업에 드는 비용, 시간, 노력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내고 있다"며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벼 병해충 항공방제를 전 읍면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확대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항공방제 시 농가에서는 약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우스, 가축, 꿀벌 등의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 아리

임실군의회 첫 예결특위 구성

임실군의회(의장 신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진남근 의원(사진)을, 간사에 황일권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구성된 예결특위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모두 7명의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2019년 6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번에 구성된 예결특위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회계연도 결산안 등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년 예산안 등을 심의하게 된다.

진남근 예결특위 위원장은 "예산안 심의시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하고, 우리군의 재정현실을 고려해 꼼꼼히 심사하여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수요를 예산에 반영하여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계상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사항을 자세히 검토해 예산이 적기에 사용되도록 심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인월면 주민소통 마을간담회 추진

남원시 인월면 진명현 명장은 현장행정을 통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당면 현안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21일생 8월 31일까지 마을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인월면 중군마을 외 25개 마을을 면장과 농민상담소장, 주민생활담당, 산업담당, 맞춤형복지담당이 방문, 시 주요 행정사항을 전달하고 당면한 영농교육, 찾아가는 복지상담, 주민수원사업 설명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간다는 방침이며,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 중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자체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시와 협조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진명현 명장은 "모든 행정은 현장에서 비롯되고 해당 또한 현장에 있기 때문에 이번 마을 간담회를 추진하게 되었다며, 주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는 밀착행정으로 민원이 감동받는 소통행정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서부지방산림청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 운영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림분야와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센터는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발굴 및 완화를 위해 규제에 대해 홍보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8개 시·군 18회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 산림분야 규제 개선 사례인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자격기준 완화, 소액 대부분 일괄납부 허용, 자연휴양림 내 반려동물 입장허용 등을 리플렛과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규



제개선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김형완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산림분야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